동성애를 거부하는 동성애자 롯

(창19:1~11)

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9.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동성애를 거부하는 동성애자 롯>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동성애를 거부하는 동성애자 롯’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두 딸을 손님으로 온 두 천사 대신에 내어줄 정도로, 동성애라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롯이 그렇게 동성애를 거부하면서도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5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말에는 동침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요구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하는 동성애자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너무 역겨워서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만 있었겠습니까? 살인, 간음, 강도, 거짓… 하여간 모든 죄가 관영한 상태였겠죠. 그런데 그 모든 죄악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시고 선봉장이고 대표가 되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동성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소돔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있었던 많은 죄악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sodomite'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는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조미료는 미원이라는 말로 통하는 것처럼.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이라는 말 자체가 남색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동시에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향한 편견과 내 안의 주관적인 못마땅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자로서는 동성애에 대한 추호의 동정이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동성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빠지는 것이 있어요. 요새 남색자들을 소도마이트라고 하지 않고 주로 게이(Gay)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도마이트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것은 소돔이 멸망한 도시 아닙니까? 그 멸망할 때의 우선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대표 격인 죄악이 동성애였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게이라고 하는 말이 남성 동성애자를 일컫는데, 영어의 그 뜻 속에는 기쁨, 즐거움, 명랑함 같은 의미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서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기쁨의 방편이죠. 게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결국 도달하려는 점이 기쁨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쨌든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에서부터 동성애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는 롯도 동성애자인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동성애자라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롯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제3의 동성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제1의 동성애가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제2의 동성애가 있다

고 한다면, 롯이 처해있는 제3의 동성애가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제3의 동성애자이면서도 자기가 제3의 동성애자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3의 동성애자들은 제1, 제2의 동성애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제3의 동성애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제1, 제2의 동성애가 전부 제3의 동성애로부터 나오는 근원이 됩니다.
제1, 제2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모든 죄악들이 거기서 샘솟듯이 나오게 되는 제3의 동성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동성애를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이해하면서 찾아가봅니다.
내가 지금 혹시 제3의 동성애자가 아닐까?
제1, 제2의 동성애를 거부하고 그것이 죄악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모든 인간이 죄악의 샘물과 같은 제3의 동성애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가를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에 러너스하이(Runner's high)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한 30분 정도 지속할 때에 숨이 가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30분 정도 지속하게 되면 어떤 순간에 갑자기, 비행기가 이륙해서 원하는 고도에 올라갔을 때 수평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 같은 편안한 황홀경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하면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달리기나 자전거, 레슬링이라든지 모든 운동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30분 정도 지속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몸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에 의해서 마치 마약을 투여했을 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장박동수를 느끼면서 30분 동안 숨 가쁘게 달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황홀한 기쁨의 순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뛉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뛰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뛰는 것이고, 정치에 입문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뛰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러너스하이, 기쁨을 향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부터 파생된 말이 리더스하이(Reader's high), 이것은 책을 읽으면서 황홀경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헬퍼스하이(Helper's high), 다른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고 기부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는데, High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나 그 전에도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뭡니까? 기분 나쁜 것이잖아요. 우울하고 근심 있고 걱정스럽고. 그러나 High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지 않고 마음이 뜨는 거예요. 기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기독교에서는 기쁨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사역 전체가 결국은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기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셨습니까? 결혼해서 좋은 아내, 아름다운 아내와 사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서울대학을 가서 기뻐하셨습니까? 명품 차와 명품 아파트, 명품 백을 샀다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무슨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돈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집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서울대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 장수하며 오래사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의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정했죠.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기뻐하십니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비어 계신데 그 빈 마음이 아버지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아버지는 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러셨잖아요.
마 3: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로 채우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기쁨을 추구하니까 기쁨이 나 다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쁨의 기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기쁨이에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도 당신 속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아버지만이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자, 여기서 동성애가 무엇인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성적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유일한 기쁨의 이유인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동성애가 나쁜 것은 알겠어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게이라는 말뜻을 붙였고, 게이라는 말에 기쁨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게이라는 말 자체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 없어도 난 기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연합장로교 자체가 게이를 인정해서 게이 목사님까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즈비언 목사, 게이 목사가 생겨났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3의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제1, 제2의 동성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3의 동성애가 무엇이냐?
소돔 성을 보니까 동성애가 보편화 되어버렸어요.
커밍아웃(coming out)이라고 하잖아요. 벽장 속에서 나온 다는 뜻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성애자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드러내기 창피하니까 숨어 있다

가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소돔에서는 일반화된 현상이 동성애입니다. 롯처럼 이성애자들이 소수자들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롯이 그것을 거부하면서도 이상하게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제3의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롯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제1, 제2동성애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했느냐?
그걸 행할 바에는 약혼자가 있는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에게 못할 짓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행할 정도로 동성애를 싫어하는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제3의 동성애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왜 동성(同性)입니까?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함께 육체적으로 쾌감을 탐닉하기 때문에.
그럼 제3의 동성애는 무엇이냐?
기쁨은 영원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뿐인데, 돈이 기쁨이고 다른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서 기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뒤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쁘다고 하는 것이 왜 동성애냐?
인간이 피조물입니다. 피조성(被造性)의 존재입니다. 돈도 피조물이고 피조성의 존재입니다.
피조성의 존재인 인간이 피조성의 존재인 돈을 가지고 기뻐하려 할 때에 이것이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잘 길러서 기뻐하려고 한다. 아버지가 피조성의 존재입니다. 아들도 피조성의 존재입니다. 피조성의 존재가 동성인 피조성의 존재로 기뻐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정치라면 대통령 자리도 피조성의 존재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피조성의 존재가 피조성인 대통령 자리의 존재를 탐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 제3의 동성애,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의 세계에서 피조성의 존재로 기뻐하려고 하는 제3의 동성애, 사실은 제1, 제2의 동성애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만 동성애인줄로 알고 있었으니까 숫자로 쳐서 제3이지, 실제로는 동성애가 발원하게 되는 근원이고,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등의 다른 모든 죄악들이 나오는 샘의 근원이 바로 제3의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들을 내놓으면서까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악행을 거부하는 롯이 왜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13장에서 땅을 놓고 결별해야 되는 상황에서 땅을 고를 때,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골라서 왔습니다. 기쁨을 찾아오는 거예요. 러너스하이. 마음이 기뻐하려고 그 땅을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이미 롯은 동성애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동성애이고 악입니까?
피조성의 존재가 피조성의 존재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악인 것은, 기쁨은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성의 존재인 인간은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야 기쁜데, 마귀는 그 채우는 대상을 피조성의 존재들 중에 얼마든지 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동성애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기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속성이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천하 만민을 다 동성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서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관계처럼 피조성과 피조성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롯이 누구였습니까?
나중에 읽어보면 롯이 결국 구출을 받아요. 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구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의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내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제3의 동성애,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다 처해있는 근원적인 악이고, 거기서 제1, 제2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이 다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출하신 이유는 의인인 아브라함과의 연관성입니다. 삼촌과 조카라는 관계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가 그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찾아오지도 않고 따로 머물게 되면서, 눈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악행이 롯의 가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때문에 롯을 구출해 내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제3의 동성애의 자리를 극복하고 박차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을 박차고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제3의 동성애자의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피조의 세계에서 나와 같은 피조성을 갖고 있는 존재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면 동성애자인 것이에요.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동성애자인 겁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동성애자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야 해요. 육체가 아프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육체의 아픔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에 말뚝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3의 동성애적 체질, 유전적, 죄악적 체질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기쁨을 상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상태에서 비즈니스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쁨의 이유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근심하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가족에게 이런저런 세상적인 문제들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정치적인 이상이 꺾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도 주님의 기쁨의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오직 아버지 한 분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 기쁨 이외에 이 땅에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러너스하이, 행위를 통해서 기쁨에 도달하려고 하는 뛰는 행동, 사업장에서 뛰든 가정에서 뛰든 자녀양육 과정이 뛰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다 제3의 동성애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롯이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끝까지 의인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제3의 동성애자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1의 동성애, 제2의 동성애를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데모합니다. 시위합니다. 그런데 제3의 동성애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있습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해요.
아브라함 곁에 롯이 있다고 해서 롯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더 주신 것뿐이지. 기회를 더 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동성애를 거부하는 동성애자 롯.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내 모습이라면 피조성의 존재로써 피조성의 존재를 통해 기뻐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3의 동성애자의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피조성의 존재를 향해 가려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십자가 생활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제1, 제2 동성애보다 하나님이 더 역겨워하시고, 근원적으로 더 싫어하시는 제3의 동성애자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제1, 제2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